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 車 금형·기능성 떡 해외시장 개척

## 조철연 에스디엠 대표

### 올 800만달러 수출 목표

### 시장 다변화 … 공급 확대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7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조철연 에스디엠 대표, 박흥수·손안상 시루연 공동대표, 박춘근 광주·전남중기청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동차 프레스금형 전문생산업체인 에스디엠(광주시 북구 대촌동·대표 조철연·48)은 지역 금형업계 가운데 최초로 2006년 500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올해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경영을 통해 800만불 수출기록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 대표는 "지난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력을 풀가동, 금형의 본고장인 유럽지역 공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미국·중국 등 10개국에 그친 해외시장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스디엠은 국내 GM대우를 비롯해 해외 BMW·폭스바겐·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메이커에 자동차 금형을 공급,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에스디엠은 지난 2005년 미국 A-Stamp사 외 2개사와 금형 영업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중국에 영업망을 구축해 지속적인 수출확대에 탄력을 받게 됐다.

조 대표는 "고객들의 다변화된 욕구를 반영, 복잡한 형상과 고강성 재질을 이용해 대량생산과 자동화 작업이 가능한 형태의 금형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출시될 자동화 금형(Transfer & Progressive Die) 역시 국내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스디엠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LED(발광다이오드) 개발에 뛰어들어 3건의 관련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2010년에 획기적인 LED 치료의료기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얘기다. 20명의 직원을 보유한 에스디엠은 지난 2006년 수출 553만2천달러를 포함해 6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수출 800만달러 포함 100억원이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손안상 시루연 대표

### 삼색떡국·호박케익 등

### '약선명가'로 유명해져

"남도지역에서 생산된 풍부한 농산물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격 브랜드의 떡을 생산, 국내시장을 제패하겠습니다."

'약선명가(藥膳名家)'로 알려진 떡 전문생산업체 (주)시루연(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손안상(52) 대표의 얘기다. '약선명가'는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먹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곳을 말한다.

지난 2006년 12월 창업한 시루연이 2년여 만에 13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700여개가 넘는 광주지역 떡 업계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한 것은 전통 제조방식에다 홍시·녹차·백련초·복분자 등 천연재료를 가미, 60여종의 상품마다 건강기능성을 강조한 떡을 출시한 때문이다.

삼색떡국을 비롯해 백련초, 영양떡, 녹두깨찰편, 두텁단자, 모시잎송편, 바람떡, 호박케익 등은 시루연의 대표주자들이다.

손 대표는 "특별한 날에만 만들거나 사먹는 음식이 아니라 간식용으로도 훌륭하고, 특히 바쁜 직장인과 젊은이들이 아무때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낱개로 포장한 것도 주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30명으로 직원을 늘린 시루연은 2006년 서울국제요리 떡경연대회 금메달, 중기청 주최 제품안전우수기업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신창동 본점과 치평동 상무점, 월계동 첨단점 등 직영점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본점 2층에 기정떡 생산라인을 증설, 본격 생산체제에 들어갔으며 기능성쌀 '녹토미'로 빚은 인절미를 선보여 서울 상륙을 모색하고 있다.

손 대표는 "올해 타 지역에 매장 개설과 함께 일본·미국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서는 등 외연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정태석 광주은행장 중도하차

## 금융공기업·금융사 CEO 10명 '물갈이' … 후임 인선 촉각

정태석 광주은행장 등 우리금융지주 산하 최고경영자(CEO) 4명이 재신임 과정에서 모두 탈락하는 등 금융공기업 및 금융회사 14곳 중 10곳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이에따라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광주은행장의 경우 중앙 금융권 인사의 낙점이 유력시 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4개 금융회사의 CEO를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태석 행장은 임기를 1년10개월여 앞두고 행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초 정 행장은 재임기간 광주은행의 경영지표를 크게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재신임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연임을 하는 등 재임기간이 길었다는 점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재신임에 실패했다. 예보의 이날 결정으로 지난해 3월 부임한 한복환 광주은행 감사도 교체된다.

광주은행은 이에따라 우리금융지주 산하 3곳과 함께 후임인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조만간 5명으로 구성된 은행장추천위원회(이하 행추위)를 꾸린 뒤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 CEO를 선출하게 되는 데 공모를 통한 선출도 점쳐지고 있다. 행추위는 사외이사 2명과 주주 또는 주주 추천인 1인, 금융관련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행추위의 경우 최대주주인 예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데다 광주은행의 부행장 4명이 모두 경륜이 짧다는 점 등에서 후임은 행내 인사가 아닌 중앙 금융계 인사중에서 발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정 행장이 직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 행장과 함께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홍석주 한국투자공사 사장,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정경득 경남은행장 등 10곳의 기관장을 교체키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교체되는 CEO**

| | |
|---|---|
| 정태석 | 광주은행장 |
| 김창록 | 산은총재 |
| 김규복 | 信保이사장 |
| 한이헌 | 技保이사장 |
| 조성익 | 증권예탁원사장 |
| 박병원 | 우리지주회장 |
| 박해춘 | 우리은행장 |
| 정경득 | 경남은행장 |
| 양천식 | 수출입은행장 |
| 홍석주 | 한국투자공사사장 |

**효도·보은선물 상품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 식품 이벤트매장은 오는 15일까지 '효도·보은선물상품전'을 열고 있다. 이번 상품전에서는 10만~40만원대의 '정관장 선물세트'를 비롯해 비타민·글루코사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광주점 제공〉

## 공정위, 부당행위 심사때 기업 방어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처리할 때 기업들의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우선 법원의 주심판사에 의한 준비절차 진행방식을 반영해 공정위의 주심위원이 혼자 진행하던 심의준비절차에 다른 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였다.

심의준비절차는 공정위 실무진(심사관)의 조사 완료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이 준비절차에서 논의된 쟁점과 사실관계 등을 담은 심의절차 결과보고서를 심사관과 피심인(기업)에게 사전에 반드시 보내주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피심인 기업은 전원회의 등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자신에 대한 변호와 방어를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 처리할 사건의 기준을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시장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인상했고,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금액 1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 中企 신기술 평가 비용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청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가치를 평가할 때 드는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23일까지 ㈔한국창업보육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 지역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

### '광주지역 노사발전협의회' 9일 출범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광주지역노사발전협의회'가 출범한다.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의장 노영열),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는 9일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노사단체대표와 지자체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노사발전협의회'를 설립한다.

협의회 의장은 노영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염홍섭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8명의 운영위원에는 노사단체에서 각각 4명씩 참여하게 된다.

운영위원은 노측에서 신민호(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수석부의장)·박래원(〃사무차장)·신문호(〃노동법률소장)·유제언(OB맥주노조 광주지부장)씨, 사측에서 윤영현(광주전남경총 사무국장)·이병근(〃부장)·박순형(광주상의 부장)·채화석(〃과장)씨 등이 참여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